

고은 불교대하소설



112

버려져 그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곳에서 굶어죽은 참극의 심이었다.

그런 섬의 악습을 씻어낸 정토의 발원으로 관세음보살이 상륙하여 바다 위와 바다 밑의 많은 중생을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내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 페르시아 사막을 건너가면 나타나는 바다의 위쪽 희랍이라는 여러 도읍국가 밖의 바닷가에 해신이 있어 바다의 악을 경계하여 다스리는 것처럼 바다 위와 관세음도 바다의 파도소리 사이로 들리는 슬픈 중생의 소리를 잘 살피고 그 보살의 힘이 달려가 그 중생의 벗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보타락가산의 신앙 첫걸음이었다.

인담이 그런 상수의 비원을 떠올려 그의 이름을 딱 한번 부르자 거기에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파도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명오의 몸속에서 삼킨 물을 토해내어 숨이 터진 것이 다행이었다. 명오의 위기와 함께 효영의 기진맥진한 상태도 평안한 것이 아니었다.

신새벽에야 생사가 아닌듯이 아무런 감각도 없게 된 세 사람은 무욕도의 남쪽 기슭에 닿았다. 그것은 도착하기 보다 표착이었다. 아니 표착 자체에 대한 실감도 없었던 것이다.

우너는 상들에게 백비탕을 끓여 그들의 타들어간 목, 잔을 먹은 목을 씻어내게 하였다. 백비탕이란 뜨거운 맹물이 아니었다.

오랜동안 몸이 익숙한 무욕도의 물이라 그들의 지친 심신을 어느 만물이든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너가 중얼거렸다.

"너도 나도 부처가 될 겨를이 없구나." 그녀는 한 시름을 놓게 되어 소석과 함께 아래 처소로 내려갔다. 그 처소에 촛불이 밝혀졌다가 바로 그것을 끄는 지 일대가 괴기한 어둠 속에서 구름장이 걸린 하늘의 한 무더기 별빛으로 물들여져 있었다.

인담은 맨 위쪽 선방 한쪽의 그의 선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도 각각 그들의 요사채로 들어가 무욕도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새벽에야 불상으로 돌아왔다.

중독 바다 건너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가느다란 먹은 사람에게 들리는 것처럼 멀리 들려왔다. 이미 인담은 거의 혼란한 것처럼 깊은 잠의 늪 속으로 가라앉아버렸다.

그런 잠도 한 여름 9순(一夏九旬)으로 말할 수 있을까. 90일동안 한 방식 위에 앉아서 여름 한철을 보내는 일이 그것이 거니와 그런 좌선에서 일어나면 그동안 앉았던 방식은 꼭 꺼져서 더이상 방식구

할 수 없는 것이다. 인담의 잠은 그런 좌선 뒤의 방선으로 하루를 무연히도 깊이 잠든 상태와 비슷하였다.

하지만 그의 잠은 깊 수 없었다. 새벽녘의 잠이아 예불을 거론 다 하더라도 해가 뜬 아침에는 깨어나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그 맑고 깊은 잠도 온전한 잠이 아니었다. 그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실로 오랜만에 꾸어 지는 꿈이었던 것이다. 수행자에게 꿈이 있으면 병통이다.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인담은 우너의 수기(授記)에 가까운 꿈과는 달리 바위가 꿈을 꾸지 않듯이 거의 꿈없는 나날로 살아온 것이었다.

그런 그가 죽을 고비를 맞았거나 넘기고 온 지친 심신인데도 그 꿈은 잠 속으로 살짝 태어난 꽃과 같은 꿈이 들어온 것이다.

그 꿈 속에 그의 스승 담인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조선 속종시대의 인담에게 고려시대의 난세에 세상을 아파하며 숨어 살았던 스승 담인이 인담의 꿈속에 나타났으니 꿈꾸는 동안 잠든 인담의 몸이 자꾸 꿈틀거

릴 수밖에 없었다. 일찌기 스승없는 종이라 여기지거서 근본 없는 종이라고 다들릴도 받고 팔지도 받았으나 그 때에나 스승을 삼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문하에 가뭇거리지 않고 그 행동거지가 도리어 의거하였던 것이다.

아니 출가승까지 세속의 부자나 모녀 또는 당파다 학파다 해서 밀착되는 사제(師弟)라는 것이 끼치는 폐단이 하나같이 아닌 사실을 짐작하는 그로서는 차라리 스승 없는 종이 얼마나 지옥에서 멀리 있는가 하고 자랑삼을만 하였다.

"어느 스님을 은사로 섬기는가?" 라는

첫 질문에 "스승은 무사승(無師僧)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를 땀이하여 딱은 딱치는 힘으로 만들어지는 터였다.

그렇게 지내는 어느날 깊은 밤의 난데없는 꿈속에 담대도 아닌, 한번 지난 시대인 고려 중기의 한 은거승 담인이 하얀 수염발이 춤추며 나타나 "내가 그대 스승이 되면 어떠하리"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꿈속에서 "오 스승이시여. 멀고 먼 스승이시여. 이제까지 스승 없이 살아 왔으나 이로부터 스승을 받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버린 것이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스승이여 한 귀쪽에 뽕 네마리(鵲四粒). 지·수·화·종의 사대(四代)를 놓고 다다가 이재야 법당에 부처님을 모셨습니까."

"그렇겠지. 현세불도 아니요 담래불도 아닌 전생대생의 연등불 정도로 알고 나와의 인연을 이어가보세나."

스승은 말이 술술 나오는 감에 더 있었다. "참 내게도 이름 하나가 붙어있는데. 어디다 팔아먹으려면 이름이라도 있어야 불러줄 것 아니겠나... 내 법명이 담인(淡印)이리네."

"스승이시여."

하지만 그동안 그는 생시에도 스승에 대한 생각은 별반 하지 않았다. 너무 스승에의 애착이 있으면 그것도 공부의 장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스승도 그런 제자의 뜻을 헤아려서인지 인담의 꿈 속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꿈속에서까지 스승은 저 아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를 지극히 생각하는 처지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그 중세의 스승이 근세의 제자에게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난 것이다. 스승 담인은 처음 꿈 속에 나타날 때처럼 긴 수염 따위가 없었다. 하지만 말소리는 아직껏 글 속의 메아리처럼 겹치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대 인담!"

"그대 인담! 오랜만이다." 인담의 입은 아무리 열려고 애를 써도 다물어진 그대로였다. 무척 안타까웠다.

“ 앞으로...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깊이 탐구할 일이야 ”

“앞으로...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깊이 탐구(參究)할 일이야.” 어머니이기보다 형이 아우한테 타이르는 것도 같았다. 그렇게 먼 스승은 제자의 마음 가장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나야 아직 이 땅의 귀신노릇이나 그럴 자노릇이나 아니면 짐승노릇이나 더하다가 떠나겠지만 그대는 어서 가서 내가 일손 따위 다 놓은 뒤의 길 자리라도 만들어 두게나...” “명두(明頭)로 나오면 명두로 누르고 암두(暗頭)로 나오면 암두로 누르는 일도



“모레쯤 설악산 꿈으로 태어나겠네... 인담 그대도 얼마 안남았네”

들의 요사채로 들어가 무욕도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듯이 새벽에야 불상으로 돌아왔다.

중독 바다 건너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가느다란 먹은 사람에게 들리는 것처럼 멀리 들려왔다.

이미 인담은 거의 혼란한 것처럼 깊은 잠의 늪 속으로 가라앉아버렸다.

그런 잠도 한 여름 9순(一夏九旬)으로 말할 수 있을까. 90일동안 한 방식 위에 앉아서 여름 한철을 보내는 일이 그것이 거니와 그런 좌선에서 일어나면 그동안 앉았던 방식은 꼭 꺼져서 더이상 방식구

릴 수밖에 없었다. 일찌기 스승없는 종이라 여기지거서 근본 없는 종이라고 다들릴도 받고 팔지도 받았으나 그 때에나 스승을 삼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문하에 가뭇거리지 않고 그 행동거지가 도리어 의거하였던 것이다.

아니 출가승까지 세속의 부자나 모녀 또는 당파다 학파다 해서 밀착되는 사제(師弟)라는 것이 끼치는 폐단이 하나같이 아닌 사실을 짐작하는 그로서는 차라리 스승 없는 종이 얼마나 지옥에서 멀리 있는가 하고 자랑삼을만 하였다.

"어느 스님을 은사로 섬기는가?" 라는

“자네 이름은 내 이름을 거꾸로 부르면 되겠네. 내가 담인인데 그대는 인담이라 하겠네. 앞으로 바다 한복판에 있어도 사방에서 그대 이름을 불러낼걸세.”

그런 뒤 스승 담인은 그의 오랜 벗이었던 불우한 천재시인 임춘의 문집을 갈추어온 곳에 가서 그것을 깨닫다가 세상의 햇빛을 보게 하라는 자못 공평적인 본부를 내렸던 것이다.

그는 먼 스승의 뜻대로 그 문집을 찾아 내어 세상에 맡겼고 그 자신의 정진도 한 단계 높여 무욕도에 도량을 개척한 것이었다.

“내가 이제 그대한테 온 까닭이야 왜 없겠는가. 아무래도 그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같아... 내가 한번 먼 후대에 온 내 제자를 한번 보고 자 해서드네.”

스승은 어느 때보다도 그 자신의 다정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것은 선승의 서릿발같은 기상 따위와는 정반대인 마치 재 몸으로 남은 자식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새삼 인담은 스승이 있는 중(有主參)이었다. 그는 입이 열리지 않자 속으로 영엄 울부짖어 은뚱으로 말하고 울수 밖에

그동안은 꽤 재미를 보았겠지... 그러나 그대는 재발 그러지 말게... 누가 독 물을 화살을 날려 그대에게 거량(擲場)을 하거든 그저 우둔한 노비인양 저이기 고개나 급실거리거나 해해 하고 침이나 흘리는 입으로 맞아들이게나... 앞으로의 큰 일(大事)은 실로 바로 천치에게서 나올 터 인즉... 인담! 나 가네... 내일 모레쯤 나는 설악산 어느 골짜기에 가서 꿈으로 태어날 작정이리네.”

그림·조향숙

현대불교

생활광고

문의 (02)737-8881 (공고국) 팩스 (02)737-0697

보리수

취급 | 각종수입형, 염주 | 일체 품목 불교악세서리

남대문 자유수입상가 구84호 전화: 778-5345, 팩스: 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 738-2045, 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사찰안내

- 위치: 경복 의성군
- 법당 1동, 상선각1동, 미륵님, 요사채2동(현대식), 사용평수 : 1300평
- 가격: 1억2천(가격절증가능)

연락처: (0576)862-0674

포교당 안내

- ▶ 50평 · 시설일체 완비
- ▶ 보증금 3000만원
- ※ 기타절증

연락처: (02)248-0479

氣 치료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정맥,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발림, 초초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經),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줌.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천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탈증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26번지 29호

주 지: 이명순(진명)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증을 공고함.

1997년 2월

탈증공고

한국불교 태고종

사찰명: 관음사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2동 510번지

주 지: 한성숙(법연)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증을 공고함.

1997년 2월

참회문

저희 불교방송 노동조합원들은 불교방송을 아끼는 불자여러분 앞에 머리조아려 참회합니다.

급변, 저희 불교방송의 불미스러운 사례로 말미암아 불자여러분께 실례를 끼쳐 드린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조합원들의 불찰때문임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노동조합이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불교방송의 발전을 위해 저희 노동조합이 힘을 보탤 것을 불자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사태로 불자여러분께 실례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고 깊이 참회하겠습니다.

불기 2541년 1월 29일

불교방송 노동조합 위원장 선상선의 조합원 일동 합장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 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전문시술원

좌골 신경통 (3회분)

張三洙 합장

711 / 4370

포교당 안내(하실분)

- 위치: 도봉구 수유리 32경 4층
- 보증금: 3천만원(월세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 ※ 상담후 절증가능

전 화: 902-9178 3492-4678

탈증공고

대한불교 삼론종

사찰명: 무애사

소재지: 서울 강북구 수유5동 451-115호

주 지: 신상철(무애)

상기 사찰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맞지 않아 이에 탈증을 공고함.

1997년 2월

사원모집

전통사찰음식 보급에 뜻을 둔 유능한 인재들 널리 초빙합니다.

▷ 경리 1명(PC가능자)

▷ 유통관리 0명 (불교용품 취급 유 경험자 우대)

연락처: (02)245-0904

전통사찰음식 연구소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무학스님 스님 시. 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